제 24호
2009년 8월 10일
[월요일]
화합 공존 통합

한민족신문

www.hmzxinwen.com

宏光貿易 中国货运 中国飞机飘预约
www.hg8828.com
중국 전지역 택배발송
고객님의 상품을 안전하게 집까지 배송해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100%만족 서비스
■ 중국 전지역 택배 발송 및 항공권 예약 ■ 한국상품 구매대행
中國貨運 中國航空機票預定 韓國商品購物代買
TEL : 070-8801-8828 FAX : 032)341-8828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5-14-102호 (1호선 소사역 3번출구 횡단보도 건너 3분거리)

등록번호 : 서울다 07958 발행인 : 장금순 편집국장 : 전길운 인쇄인 : 이준섭 대표전화 : 02)2676-6866, 2637-0814 팩스 : 02) 2676-6866 E_mail :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3가 318, 302호

주한중국대사관

"해외 중국공민 문명형상 수립"활동 개시

◇ 장국동 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해외거주 중국공민들의 문명형상을 수립할데 관한 좌담회" 회의장

8월 2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고 재한 중국교민협회에서 후원하고 조직한 "해외거주 중국공민들의 문명형상을 수립할데 관한 좌담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재한중국동포 관련 유관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좌담 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형해명 임시대사대리와 하영 총영사, 장국동 영사, 왕대위 영사와 각 부서의 담당영사들과 재한 교민협회 한성호 회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다.

좌담회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형해명 임시대사대리는 중한관계가 날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특히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중국 공민들의 문화의식수준이 제고 되어야만 문명예의지국인 한국에서 대접받을 것이며 중국의 이미지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 중한수교 후 정치, 경제, 문화방면에서 두 나라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교당시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류에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노력이 크다고 하였다.

이어 하영 총 영사도 한국과 중국은 현재 정치, 문화방면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두 나라는 모두 아시아국가에 위치하여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무역파트너이면서도 수출국이며 또 제일 큰 관광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유학생교환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교당시 두 나라의 무역액은 50억달러였으나 현재는 1180억달러로 늘어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고 하였다.

이날 중국대사관 하영총영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건국 후 30년동안 중국인들이 출국한 인원은 28만여명이였으나 지난 한해에 출국한 인원만 4,800만명이라고 한다. 이중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58만여명이며 이중 조선족동포가 대부분이여서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하기에 동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이미지도 달라진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날로 발전하는 중국의 이미지개선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어떻게 해외공민의 이미지제고에 노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하영 총영사는 첫째로는 그곳의 생활습성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한국에 온 만큼 한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기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서울 대림지역에는 언제나 동포들이 집중되는 곳이라서 대사관에서도 수차 다녀오고 지역경찰서나 지구대와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본인들의 자아의식이 있어야만 문명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대사관에서도 모든 재한 중국인들에게 꼭 질서와 법을 지키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사관에서는 이번에 진행되는 "해외거주 중국공민들의 문명형상을 수립할데 관한 선전월" 활동기간을 8월로 정하고 법질서와 생활질서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소책자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이나 단체들에서 함께 동참하여 실천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반 취업자들보다 유학생, 단체 대표나 기업투자자들이 먼저 앞장서 이번에 진행하는 중국공민들의 문명형상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2009 제11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KBS 한민족방송에서 '2009 제11회 북방동포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동포 여러분이 타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체험(시, 수필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 분량

성인 부문 200자 원고지 30매(A4 7-8장) 정도, 청소년 부문 200자 원고지 15매(A4 3-4장) 정도로 마감은 8월 15일까지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50-79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한민족방송 [제11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인터넷 www.kbs.co.kr / 한민족방송 / 제11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참여 코너

E-mail yesbaby@dreamwiz.com
mover@kbs.co.kr

▣ 시상 내역 / 총 19명(곳)

1) **대 상 (2명) :** 성 인 1명 – 100만원, 상금 및 상패
청소년 1명 – 50만원, 상금 및 상패
2) **우수상 (4명) :** 성 인 2명 – 각 70만원, 상금 및 상패
청소년 2명 – 각 30만원, 상금 및 상패
3) **장려상(10명) :** 성 인 5명 – 각 50만원, 상금 및 상패
청소년 5명 – 각 20만원, 상금 및 상패
4) **단체상 (조선족학교) :** 발전기금 100만원 및 상패
5) **지도교원상 (조선족학교 우리말교원 2명) :** 상패

2009 제11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단강시 주민 행복감 전국 평균 74.21%수준에 도달

국가통계국 목단강조사대에 따르면 근 2년내 목단강시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행복감도 전국평균 수준의 74.21%에 도달했다.

목단강시 주민들의 행복감, 가정상황, 경제정황, 건강상황, 거주환경, 생활환경, 직업, 지식능력, 사회지위에서의 구체적인 행복감은 모두 제고되였다.

조사가운데 74%에 달하는 주민들이 "총적감각이 행복함"에 속했다. 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면은 가정, 경제상황, 건강상황이였고 거주, 생활환경, 직업, 지식능력과 사회지위 등 면에서의 만족도는 조금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수입이 높아갈수록 행복감이 부단히 증가되였는데 고수입 인군(人群)의 행복감이 가장 강했으며, 31-46세 주민들의 행복감은 더욱 돌출하게 강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 신체건강, 사업에서 성과가 있고 직업이 온정하며 주택이 있어 만족하다는 점에서 아주 행복하다고 했다.

조사에서 "행복스럽지 않다"는 원인에 가장 앞서는 두 가지 요인은 수입과 취업항목으로서 각기 72%와 71%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취업이 수입을 가져오고 수입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자연적으로 더 높아진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행복스럽지 않는 원인은 자녀교육, 건강상황, 사회보장과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이였다.

/리 헌

베이징서 건국60주년 기념금은괴 판매 불티

지난 7월 30일, 건국 60주년 맞이 금은괴가 베이징시 동성구 왕부정대가 200번지에 자리잡은 중국공예미술빌딩 판매점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지금 일 평균 100위안 이상씩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요해에 의하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 중국 성립60주년 귀금속기념품은 "건국 60주년 기념금은괴", "건국 60주년 국보금은괴", "국보5우생소금은괴", "공예미술황금"

등 4대류의 10가지 품종이며 근 50가지 규격으로서 판매가는 1,000위안에서~수만위안이다. 이 판매점은 베이징에서 건국 60주년 맞이 귀금속 수장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품종이 제일 많고 규격이 제일 구전하며 규모가 제일 큰 상점이다.

건국 60주년 기념금은괴 구매자중 대부분이 베이징시의 수장애호가들이며 일부는 외지인이나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8년째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모씨도 기념금괴를 사들고 기쁨을 멈추지 못했다.

/베이징=박광익 기자

공정·공익 KBS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한민족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애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소개할 내용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제보: 02-2637-0814, E_mail: xinwen77@naver.com

▶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 KHz, 중파 1134 KHz로 07:00 ~ 08:00 22:00~ 23:00 ▶한민족 제2방송 중파 1170 KHz로 12:00 ~ 13:00

한민족신문 정기구독 안내

한국생활의 길잡이, 출입국정책과 최신소식, 취업정보, 문화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민족신문》.

발 빠른 중국속의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경제정보, 기업투자의 모든 정책과 정보를 제때에 볼 수 있는 《한민족신문》.

발행일: 매달 10일, 25일.
구독료: 5만원/1년 (우편료 포함)
구독문의: 02-2676-6866, 02-2637-0814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 금 주: 한민족신문, (주)신민신문

Well-being Rex 윤(潤) 헤어샴푸

렉스 윤 헤어샴푸는 인삼, 하수오, 천궁추출물 등 두피와 모발의 건강에 좋은 한방원료를 함유하여 두피에 활력을 주고 소염작용과 항알러지작용이 강한 살리실산, 금박, 프로폴리스 및 효모 추출물 함유로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여 머릿결을 촉촉하고 탄력있게 유지시켜주며, 두피 보호막을 형성하여 비듬 및 가려움증을 예방해 주고 모공 및 모발을 생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모공확장, 모세혈관 확장, 두피노화 방지! 탈모방지! 가려움증 예방, 살균효과! 보습 및 모근강화!

웰빙 프리미엄 골드 기능성 전문치약

金, 프로폴리스, 키토산 + 콜라겐, 아스코르빈산, 알로에, 자일리톨, 녹차추출물 함유

치주질환, 잇몸질환 예방 / 치주염, 치은염 예방 / 치석침착 예방 / 치태제거 / 치아미백 / 구취제거

(주)렉스샤론 상담전화: 031-721-4200 영업부 : 02-2678-7277, 02-2676-6866

꼭 투자해야 하는 두 가지 투자대상

2009년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풀린 시중의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500포인트를 돌파했고 환율도 연중최저치(원화 값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계획해서 진행되었던 각종 시장 완화 내지는 활성화 대책을 금리인상이나 공급감소를 통해서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출구전략이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일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내부 열기로 들썩이는 뜨거운 냄비의 뚜껑마냥 들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당연히 개인들은 서서히 조바심이 나고 있으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재테크 강연회를 쫓아다니고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남들보다 먼저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마저 2006년 12월의 가격 전 고점을 돌파한 단지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강남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90%이상 회복되었다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투자기회를 다시 놓쳤다는 아쉬움으로 목소리들도 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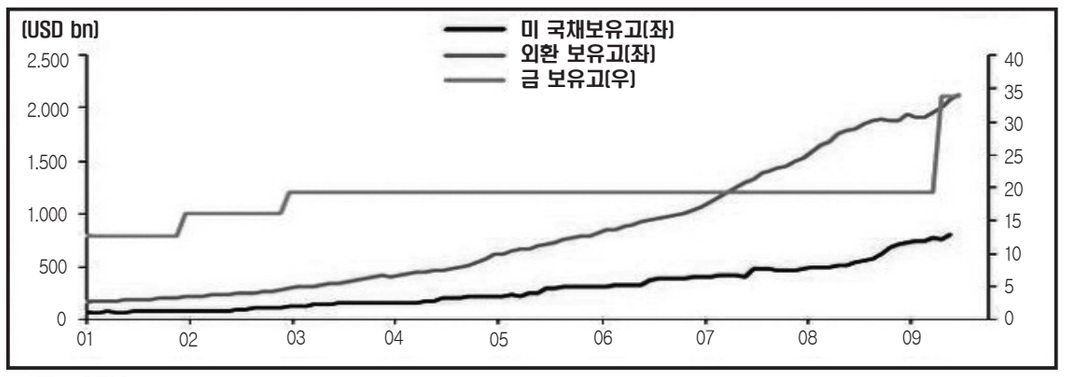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에 개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거나 투자를 시작할 때 반드시 편입해야 하는 두 가지 투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투자이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국가가 향후 세계를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예상이 G2 시대의 도래로 기사화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약 1조 6천5백억 달러어치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천15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채를 홍콩이나 대만, 싱가폴까지 합친 중화권의 보유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향후 공생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외환 보유고 추이



자료 : CEIC

따라서 향후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발 돋음 하려는 중국의 행보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 중국의 원자재 구매속도나 경제불황 속에서도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봐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한 분산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여 진다.

지난달 29일에 너무나 많이 올라간 주가와 위완화 절상 예상, 과도한 대출남발로 인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2007년 2월 8%대 폭락 이후 최대폭인 5%가량 폭락을 했는데 다음날 국내 대부분의 증권회사의 리서치 자료 제목들 중 상당수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의 의미", "중국 주식폭락을 바라보며..." 로 시작했다는 점을 봐서라도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경제와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중국에 투자했던 펀드들 중 상당수가 2007년 이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회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 가입했던 중국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 가장 많이 자금유입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원자재 투자이다.

지난 3월 계속된 경제불황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FRB)은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 공급을 무제한 늘린다는 내용인 양적 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계속적으로 찍어내어 유동성으로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실제로 과거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10월 이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자산 유형별 수익률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도 상승을 했지만 상품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중에 아무래도 돈이 풀리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적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과도한 외환보유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매집하다시피 구매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펀드나 DLS등의 간접투자와 원자재선물이나 골드바 같은 직접투자 방법을 적당히 섞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서기수

中 해외상장 인터넷업체중 개인자산 랭킹

중국 b2b연구센터가 <2009년 중국 해외상장 인터넷IT기업가족 자산랭킹>을 발표했는데 알리바바사에서 8명이 랭킹에 올랐다.

랭킹은 회사가 아닌 가족의 자산에 따라 순위를 정했다. Netease의 58.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뢰(丁磊)가 1,802,494만원의 자산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69억원의 자산을 가진 Tencent의 대주주 마화등(马化腾) 가족이 차지했고 snda의 진천교(陈天桥) 가족이 145억원의 자산으로 3위에 올랐다.

놀라운 사실은 알리바바의 창시자인 마운이 알리바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알리바바는 무려 8명이 이번 랭킹에 들어 해외상장 인터넷기업중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회사가 됐으며 위철(卫哲) CEO의 자산이 마운을 초과했다. 마운은 줄곧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줘야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수 있으며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업계에 알려진 인물이다.

2007년 알리바바가 홍콩증시에 상장할 당시 알리바바의 CEO 위철은 4825만주를 소유했는데 주당 30홍콩달러의 개장가격으로 계산할때 그 가치가 14.5억홍콩달러정도에 달했다.

그외 toocle의 4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손덕량(孙德良) 가족이 9.9억원의 자산으로 마운을 초월했다. Toocle은 유일하게 중국 국내에 상장한 인터넷기업이다.

이번 랭킹에 오른 인물들은 그 상장회사의 자산에 따라 순위를 정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여러개의 미상장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랭킹에서 밝혀진 것에 비해 더 많다.

오바마 "美 경기침체 끝났다" 공식선언

다만,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경기 회복은 오지 않는다" 덧붙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침체가 막을 내렸음을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끝났다는 징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시는 오르고 있고 집값은 거의 3년 만에 상승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경기침체가 마침내 끝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며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경기 회복은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경기침체가 이미 막을 내렸거나 곧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이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앞으로 3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날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경기후퇴가 이미 끝났다"고 진단했다.

또 응답자의 26%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경기침체가 끝날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의 전문가가 미국 경제가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의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9%가 "고용 증가"를 꼽았고 26%는 "소비지출 증가"라고 답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캐피털도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난 6월 이미 끝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의 크리스천 브로다 국제경제연구소장은 "연초 아시아에서 시작된 경기 반등세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다"며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실업률은 9.4%로 전달의 9.5%에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7월 중 민간부문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0.1시간 늘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0.3시간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실업률 증가세 둔화와 노동시간 증가는 향후 고용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지표"라고 전했다.

창원시, 중국 장춘시와 우호협정 체결

창원시와 중국 장춘시가 '우호협력' 협정을 맺음에 따라 한·중 지방정부간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열었다.

'제11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완수 창원시장은 5일 오후 장춘시 샹그릴라호텔에서 추이지에(崔 杰) 장춘시장과 양 도시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창원대학교 총장과 스닝중(史寧中)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총장도 함께 참석해 4개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및 우호협력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날 양 도시와 양 대학은 협정서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학술, 환경 등 다방면에서 우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전개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와 장춘시는 경제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시 기업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하는 한편, 양 시의 4개 기관은 상호 기술, 학술, 환경 등의 주제로 2년에 한 번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와 녹색성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대학교와 동북사범대학교도 연구소와 교수 간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며, 단기 방문시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완수 시장은 협정서를 체결한 후 "장춘시는 인구가 745만 명이 넘는 길림성의 성도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도시지만 생태환경에도 역점을 두어 중국의 정원도시로서 우리시의 환경정책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오늘 이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경제,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와 기술지원이 증대돼 창원과 장춘 양 도시가 동반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산업, 철도산업의 중추도시인 장춘시가 우리시가 주도해 창설한 UMCA(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에 꼭 가입해 함께 윈-윈을 위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회원가입을 희망하기도 했다.

"경제위기 심해질수록 中 의존도 커질 것"

KDI 국제회의 "외환보유액 인위적 확충땐 환투기 유발"

경제위기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정훈 하와이대 교수는 7일 열리는 KDI 주최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자 국가안보 보장국으로 오래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돼왔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한미 경제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중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정책을 쓸수록 중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한국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을 통해 금융위기의 원인과 향후 금융기관의 역할,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와 다케오 오시 UC샌디에이고 교수, 레슬리 영 홍콩 중문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석학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다.

한편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 확충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인위적으로 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 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